

쿠팡, 금산군과 함께 인삼 농가 지원

윤 민경식 기자 | 승인 2025.09.03 09:04

상생기획전 진행



쿠팡이 금산군과 함께 인삼 농가를 지원한다. 사진=쿠팡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쿠팡이 협력해 인삼 농가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금산 인삼 상생기획전’을 마련하고 금산 인삼 제품 1200여 종을 최대 10% 할인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월말까지 열리는 행사는 금산군이 주관하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수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금산 인삼의 품질과 경쟁력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쿠팡과 금산군은 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프로모션 비용을 뒷받침한다. 쿠팡은 쿠팡 앱 메인 화면에 금산 인삼을 노출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고객은 수삼, 액기스, 절편, 건강음료 등 다양한 금산 인삼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장만할 수 있다.

쿠팡과 금산군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지역 인삼 농가를 도왔다. 2023년 11월에는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입점 상담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협력은 PB상품 개발로도 연결됐다. 쿠팡의 자체상품(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금산군과 손잡고 2023년 7월 ‘곰곰 금산 인삼’, ‘곰곰 갈아먹는 금산 인삼’ 등 PB상품 10종을 선보인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인삼은 우리 고유의 건강 식품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중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경식 기자